

‘전기차 배터리 리스’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끌고 정부 밀고… ‘배터리 재활용’ 친환경車 ON

丁 총리, 현대차기술연구소 방문
정의선 회장 만나 친환경차 논의
구매 초기비용 부담 낮추고
사용된 배터리는 ESS로 제작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정부와 산업계가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가 정부 및 물류·배터리·모빌리티 업계와 손잡고 전기차(EV) 배터리 대여(리스) 사업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이용 주기 전반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현대글로비스, LG에너지솔루션, KST모빌리티와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 총리는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분기별 진행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고객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사업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실증하고 잔존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는 연관 신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전기차 보급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 사례”라며 “새로운 혁신 모델 실증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가 조기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국가에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MOU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행사에 매각한다. 이후 사업자는 전기차 보유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사실상 배터리값이 빠진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셈이다.

또 배터리 순환 모델도 실증한다. 전기 택시에 탑재된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할 때 확보되는 사용후 배

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만들어 전기차 급속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ESS를 충전하고, 전기료가 비싼 낮 시간대에 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대차는 실증 사업을 종결하면서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택시 플랫폼 사업자인 KST모빌리티에 판매한다. 배터리 보증은 물론 교체용 배터리 판매도 담당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배터리 대여 서비스 운영과 사용후 배터리 회수물류를 수행한다. 최근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사

용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대량 운송할 수 있는 전용 용기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사업 역량을 키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용후 배터리를 매입해 안전성 및 잔존 가치를 분석 한다. 또 사용후 배터리로 ESS를 제작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탑재하고, 해당 충전기를 차량 운용사인 KST모빌리티에 판매한다.

KST모빌리티는 전기차 기반의 택시 가맹 서비스를 운영하고 택시 충전에 ESS 급속 충전기를 활용하게 된다. 전기 택시 운행을 통해 수집되는 주행 및 배터리 데이터는 MOU 참여 기업에 제공한다.

취업제한 해제…김승연 회장 복귀 ‘촉각’

〈한화그룹〉

오늘부터 공식 경영복귀 가능
내달 주총서 복귀 여부 윤곽
미래 사업, 경영 승계권 주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게 적용된 취업제한 해제가 다가오면서 그룹 경영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이날 해제됐다.

앞서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 회장은 (주)한화를 비롯한 총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



료됐지만 특경 법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경영활동이 제한돼 왔다. 이날부터 해당 규정이 종료돼 19일부터 공식적으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이르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인 (주)한화 등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오르게 되면 2014년 이후 7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김 회장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는

맡지 않았지만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취업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게 되면 공식적인 대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채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7년간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경영 활동을 이어온 만큼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전보다 경영활동은 왕성히 유지하면서도 세 아들에 대한 경영 승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사장은 한화솔루션을, 차남인 김동원 전무는 한화생명을 각각 책임지고 있고 삼남인 김동선 상무보는 최근 한화에너지로 복귀한 상태다.

또한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신사업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사업역량과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린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에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신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김 회장의 복귀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 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위상이 주락한 전경련 회장직을 이제 막 복귀를 앞둔 김 회장이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최대 실적인데…” 네이버도 성과급 갈등

사측, 25일 관련 설명회 개최

SK, 삼성, LG에 이어 네이버에서도 성과급 갈등이 발생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지난 6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임직원에게 보냈다.

노조는 메일에서 “이번에 지급된 성과급은 사상 최대 실적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5조3041억원, 영업이익 1조2153억원을 올려 전년도보다 각각 21.8%, 5.2%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

지만 성과급 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하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은 맞지만 각종 투자 등으로 영업이익은 5.2% 소폭 성장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1월 ‘CEO 레터’를 통해 등급별 성과급 인상률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알렸다. 각 조직별로 임직원 개개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급 기준을 공유했다.

양측의 갈등은 사측이 지난 9일 노조에 ‘전체 메일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하며 심화됐다. 사측은 각종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내 노조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업무용 메일을 노조 의견 전달 창구로 반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네이버는 오는 25일 전체 임직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과급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1면 ‘비트코인 따라’서 계속

“투기성 자금 유입 커”

비트코인 회의론 솔솔

최근 해외 기업들의 대량 매수 소식 등 주류 통화로 언급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상승에 따른 회의론도 꾸준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니콜라オス파니기르조글로우 JP모건 투자전략가는 “최근 5개 월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7000억달러(약 77조원) 성장했으며, 이는 제한적인 공급량과 일부 개인 투자자 수요 증가 효과”라며 “기관투자자 유입에도 전체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아 투기성 자금 영향이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위험도 척도를 측정하는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87.58로 ‘매우 탐욕적’ 단계로 진단됐다.

이 지수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5에 머물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3일부터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매우 탐욕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